

## “부디 안녕히”... 근현대사 속 원통한 영혼을 위한 영상 씹김굿

May 30, 2017 | 도재기 선임기자



무속과 전통의 재해석 등 근대성 탐구로 한국사회를 성찰하게 하는 미술가 박찬경의 작품들 '안녕 Farewell'(국제갤러리)에 출품된 작품 '시민의 숲'(3채널 비디오·사운드, 26분6초) 설치전경.

국제갤러리 제공

## “부디 안녕히”... 근현대사 속 원통한 영혼을 위한 영상 씹김굿

### 미술가 박찬경, 5년 만에 연 개인전 '안녕'

미술가 박찬경(52)의 작품은 형식이든 내용이든 단순한 듯하면서도 복합적이다. 영상이든, 사진이든, 설치작품이든 마찬가지다. 지밀한 인문학적 조사·연구가 바탕에 깔려 있어서다. 알고 나면 새삼 생각거리기 풍성한 작품이라고 여기지만, 피상적으로 읽기 쉽다. 작품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중층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다.

최근 개막한 개인전 '안녕 안녕 Farewell'(국제갤러리)도 그렇다.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검정 단

순한데도 분석하면 할수록 여러 이야기, 생각할 것이 많이 응축된 작품을 하고 싶다”며 “아빠면 미술작품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20여년째 근대성을 탐구하고 있다. 현대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성립은 없이 발전이란 이름 아래 압축성장을 하다보니 식민적 문화 등 극복하지 못한 근대성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성장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

### 동학부터 세월호 참사까지 근대화 성찰한 '시민의 숲' 명두 등 무속도구 작품화 '정신적 타자' 무당에 주목

이 필요하다. 근대성 탐구와 전통문화 연구 등에서 그것을 찾는다. 이를 근거로 예술적 상상력을 녹인 작품은 한국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성찰을 권유하고, 나아가 새로운 사회를 꿈꾸자고 말한다. “사회에 비판적 시선을 가질 때에



박찬경의 '질성도'(뒷면 설치모습). 명두와 자자나무 판에 단형, 108×200cm.

비로소 희망을 말할 수 있다”는 그의 작품은 그래서 사회비판적이다. 근대성의 한계를 되짚는 그에게 무속을 향한 관심은 당연하다. “사회적 타자란 흔히 계급 차원, 소수자들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정신적 타자에 주목하죠. 근대화과정에서 근대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무당을 비롯한 많은 것들이 배척됐죠. 어쩌면 무당의 정신세계가 우리보다 넓고 깊지 않을까요. 정신적 타자와 속어 우리는 상상력, 전통문화의 고귀한 정신 등을 잃거나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전시회는 무속과 전통을 재해석한 설치와 영상, 오브제 등 신작 10여점으로 구성됐다. 사운드와 어우러진 3채널 비디오 작품 '시민의 숲'(26분6초)은 동학

농민운동·한국전쟁·공주민주좌은 등을 물론 세월호 참사까지 근현대사에서 희생된 숭한 사람들을 대한 애도를 담고 있다. 원통히 죽어 한을 간직했던 사람들을 그린 판화가 오윤의 미완성 그림 '원귀도'와 전통 문화를 사유하게 하는 시인 김수영의 시 '거대한 뿌리'가 작품의 바탕을 이룬다. 흑백 영상 속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많은 희생자들을 낳은 시간들이 은유적으로 그려지며, 느리게 움직이는 화면은 관람자를 초연실적 상황으로 이끈다. 사실 '시민의 숲'은 원통하게 죽은 영혼들의 한을 풀어 저승세계로 인도하는 ‘박찬경의 씹김굿’이다. 아니 중층적 의미를 더 따져보면, ‘박찬경의 뒤틀린굿’이다. 뒤틀린(뒤틀진)은 굿마지막에 잡귀들까지 대접해 그 한을 풀어주는 것을 말한 다. “소수자에게까지 관심을 갖는” 뒤틀린굿이 저나 배려의 마음, 근대화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정신을

기계 하는 듯하다. 오부제 작업인 '밝은 밤' 연작, '질성도'는 명두(명·차)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명두(명도는 매우 중요한 무속 도구로 무당과 신령의 교감·소통의 매개체다. 낫으로 만든 앞만은 가늘게 반질반질하고 뒷면에는 해와 달, 복두정신을 새겨놓는다. 도교의 불교가 합쳐지고 여기에 무속이 융합된 우리의 독특한 신앙의 결과물이다. 대대로 수많은 사람의 간절한 바람이 응축되고 인간사를 초월하는 무한한 상상력의 상징물이다. 단정된 한 자자나무 판과 명두로 이뤄진 '밝은 밤'은 시각적 아름다움까지 빼어난 명상적 작품이다.

한국 사회의 여러 측면을 되새김질하게 하는 다양한 작품으로 국내 외적 주목을 받는 박찬경은 친형인 영화감독 박찬욱과 함께 영화작업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7월2일까지, 도재기 선임기자

jakko@kyunghyang.com